

대학의 질 제고를 위한 대학평가의 성과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평가를 중심으로 -

황인성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책임연구원

I. 머리말

세계 모든 국가가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가의 경쟁력은 대학의 경쟁력과 상호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IMD에서 2006년도에 발표된 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즉, 미국은 국가경쟁력과 대학경쟁력이 각각 1위와 3위이고, 싱가포르를 3위와 1위로 나타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질적 경쟁력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진학률은 세계적이지만, 대학경쟁력은 40위(IMD 2007)에 그치고 있으며, 영국의 The Times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200위 대학 중 3개 대학만이 이름을 올리는데 불과하다(The Times, 2006). 이에 반해 같은 아시아권 국가인 일본은 11개, 중국은 6개 대학을 올리고 있다.

세계 국가들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학개혁을 국가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주요 국가의 대학개혁 동향을 보면, 일본은 국립대 법인화, 제3자 대학인 증평가 의무화 등을 하고 있으며, 중국은 211공정, 985공정, 111프로젝트 등을 추진하여 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독일은 EU 통합에 따라 고등교육 국제화를 위한 학사구조 개혁, 대학평가시스템을 정비하였으며, 세계 1위 국가인 미국도 대학경쟁체제 확립, 자율적 질 관리를 위한 평가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대학평가가 대단히 중요한 정책기제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주요국가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 고등교육의 질 보장과 국제화를 위해 고등교육평가 관리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일본 등은 고등교육평가 관리 기구를 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법적 장치를 제도화하였다.

II. 국내 대학평가의 현황

주요국의 대학평가와 비교할 때, 국내 대학평가는 도입 시기와 내용 면에서 다른 국가에 뒤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대학평가에 대한 관심과 비중이 높아지면서 국내에서 대학평가를 수행하는 기관도 대교협뿐만 아니라, 교육부, 민간평가기구, 언론사 등이 하고 있고, 향후에는 관련 학문분야의 학술단체 등으로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이들은 서로의 평가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법과 평가지표를 가지고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수행되고 있는 대학평가에 대한 비판적 지적도 있지만, 대학평가가 한국의 대학교육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데 상당한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

러나 대내외적인 환경의 변화로 평가체제 전반에 대한 개선과 보완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평가기관별 평가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 같다.

1. 정부의 대학평가

- 정부의 대학평가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평가이다.
 - 교육인적자원부 : 대학특성화사업
 - 한국학술진흥재단 : BK21 사업, NURI 사업
 - 산업기술재단 · 직업능력개발원 :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

2.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평가

- 대학종합평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이라 칭함)는 1982년 설립과 더불어 4년제 회원대학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하였으며, 1994년 평가인정제를 도입하여 1?2주기에 걸쳐 대학종합평가인정제를 시행(1주기 : 1994~2000년, 2주기 : 2001~2006년) 하였다.
 - ※ 2006년에 2주기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종료 후, 참여정부의 고등교육평가원 설립 추진계획에 따라 대학종합평가 예산 미확보로 2007년 이후 중단 상태
- 학문분야(학과) 평가 : 1980년대와 1990년대는 대교협을 중심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2005년부터 5년 주기 학문분야평가가 시행중이다.
 -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전문대학의 학문분야평가 실시 중

3. 민간평가기구의 대학평가

-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의학, 공학, 간호학, 건축공학 등의 학문분야별 민간평가기구가 설립되어 해당 학문분야에 대한 프로그램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공학교육인증원, 의학교육평가원, 간호교육평가원, 건축공학인증원, 경영교육인증원(2007년 설립)

4. 언론사의 대학평가

- 중앙일보 대학평가는 1994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는데, 종합평가와 학문분야별로 양적 위주의 평가를 실시하여 순위발표를 하고 있다.

Ⅲ.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평가 성과

대교협은 1982년 발족된 이후로 5년 주기의 기관평가를, 1994년부터 대학종합평가인정제를 시행하였다. 모든 대학들은 평가를 준비하면서 전반적 교육여건의 변화를 도모하였고 대학종합평가를 받는 대학들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한 결과 질적·양적으로 변화하였다. 교육여건의 질(quality)적인 변화는 각종 규정의 개정 및 면학분위기 향상, 연구 분위기 고취 등을 들 수 있고, 양(quantity)적인 변화는 시설설비의 확충 및 교수채용 등을 들 수 있다.

제1주기 평가에서는 주로 하드웨어 구축과 양적인 평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실제 대학종합평가를 받은 대학들의 경우 평가전 후 3년 동안의 교수 증가율은 평균 18.9%로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시설설비의 개·보수 및 증축, 교내 전산망 구축 및 도서관 전산화 등의 교육 여건도 크게 향상되었다. 이외 평가를 받는 대학들은 모두 교수업적평가제의 추진, 교육과정의 개편, 장단기 재정확보 계획의 수립 등의 질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 대학에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전반적인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했다.

2001년부터 시행하여 2006년도에 마무리된 제2주기 대학종합평가에서는 질적인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1주기와 2주기의 대학평가에 대한 성과를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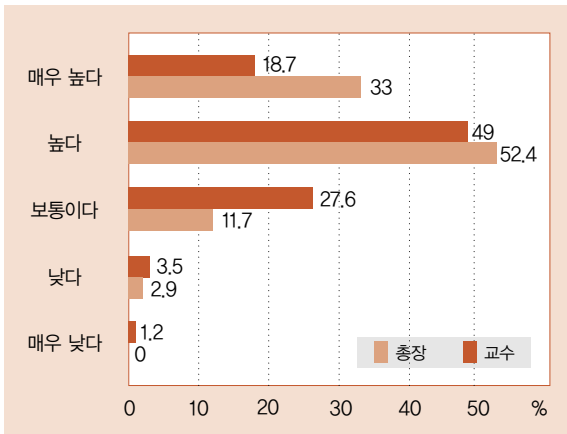


그림 1. 대학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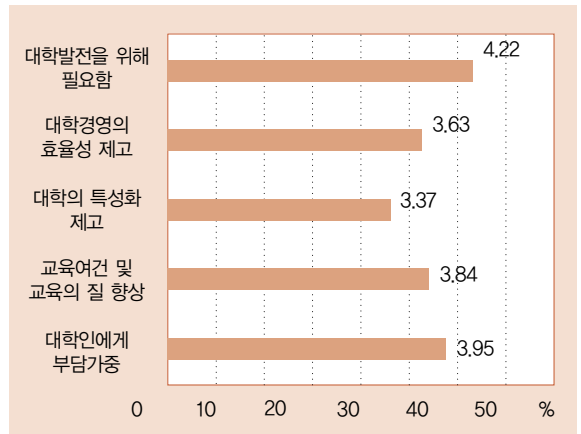


그림 3. 대학평가에 대한 일반적 인식

1. 1주기 대학종합평가의 성과

1994년도부터 실시된 1주기 대학종합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2000년에 실시한 의견조사결과로 대학평가에 대한 대학 및 사회의 평가를 간접적으로 알아 볼 수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 '대학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대학구성원들의 인식을 보면, 총장의 85.4%, 교수의 67.7%가 대학평가의 필요성이 있다고 반응하고 있다.

'대학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한

대학구성원들의 인식을 보면, 총장들은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과 서비스 향상'이라는 응답이 82.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교육여건 개선', '대학특성화 유도', '국제경쟁력 향상' 순으로 응답하였다. 교수들도 역시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과 서비스 향상'이라는 응답이 67.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교육여건 개선', '대학특성화 유도' 순으로 응답하였다.

대학구성원들의 '대학평가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살펴보면, '대학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5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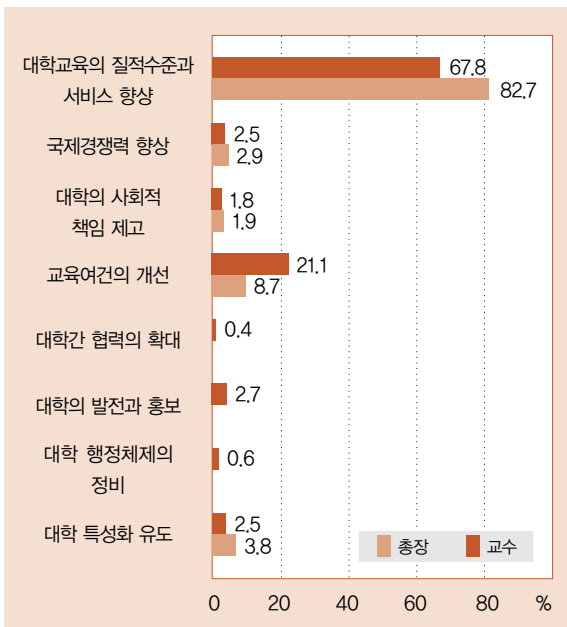


그림 2. 대학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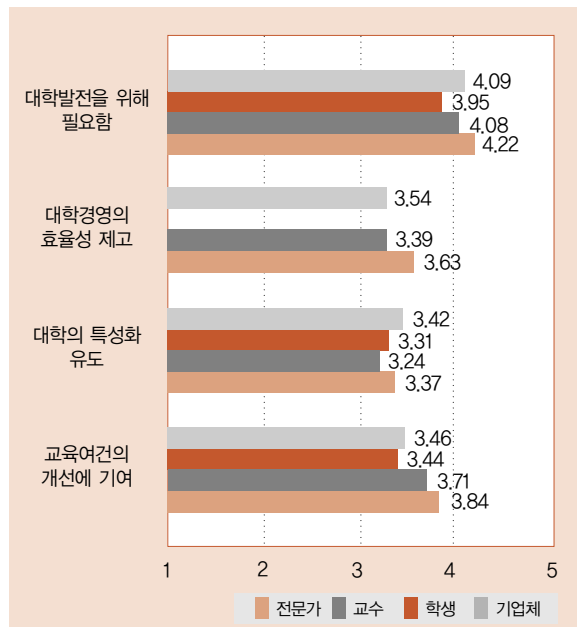


그림 4. 집단별 대학평가에 대한 일반적 인식 비교

에 4.22로 가장 높았고, ‘교육여건 및 대학특성화 유도’라는 응답이 3.84, ‘대학효율성 제고’에 필요하다는 응답이 3.63으로 나타난 반면에, ‘대학인에게 부담 가중’이라는 응답도 3.99로 나타나 대학평가가 대학발전에 기여도 하지만 대학에서는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평가가 특히 대학발전과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전문가집단에서 대학평가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2주기 대학종합평가의 성과

2006년도에 실시된 2주기 대학종합평가가 종료된 이후 관련 기관 및 언론사를 중심으로 조사된 설문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교육부 정책연구팀 조사

- 조사대상 : 대학 기획실장 20명, 대학평가 담당 행정직 63명, 평가위원 참여 교수 22명
- 조사기간 : 2006. 12. 10 ~ 24
- 조사결과 요약 : 교육여건 개선, 대학교육 수월성 제고, 대학경영의 효율성 제고, 대학의 책무성 향상, 시대적/사회적 요구 부응 교육 유도, 대학교육의 국제화 추진에 기여하였다는 순기능적 반응을 보인 반면에 대학의 자율성 신장, 대학 간 협동성 진작, 대학 재정지원 확충 등에서는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음.

2) 전국대학평가협의회 조사

- 조사대상 : 전국 201개 대학 평가책임자 175개 대학 175명
- 조사기간 : 2007. 4. 2~4.14.
- 조사결과 요약 : 대학교육여건 및 시설 개선, 교수 연구업적 향상, 대학행정의 개선과 체계화, 대학의 특성 유도,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제고, 대학교수들의

연구업적 향상, 학생들의 대학 만족도 향상, 대학행정의 개선과 체계화, 대학의 이미지(인지도) 제고, 대학교수 충원 확대, 장학금 증가 등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에, 국제 수준의 대학 발전 계기, 우수 학생선발 방안 마련, 대학 간 및 산학 협동 진작 등에서는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음.

3) 한국대학신문 조사

- 조사대상 : 최근 3년간 대학평가 참여 평가위원 및 대학자체평가위원 176명 대학평가위원 525명/대학 자체평가위원 348명 중 임의추출
- 조사기간 : 2007. 4. 18~4.30
- 조사결과 요약 : ‘대학종합평가의 필요성’에 대하여 72%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학문분야평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68%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학문분야평가에서도 대학종합평가의 조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학문분야 교육 및 연구, 대학특성화 등 조사항목에 대해서는 점수가 높았으나, 대학 간 협력강화, 학생의 면학풍토 조성, 지역 사회발전 기여 등의 조사항목에서는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게 나타남. 또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현지방문평가를 시행하는 현행의 평가방식이 대학발전과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반응을 보임.

이상의 설문내용을 종합하여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효과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대학교육여건 개선의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 둘째, 대학의 교육과정이 개선되었다.
- 셋째, 교수의 연구 분위기와 학생들의 면학풍토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 넷째, 대학교육에 대한 일반사회의 신뢰도가 증진되고 있다.
- 다섯째, 대학의 행정 및 학사조직이 개선되었다.
- 여섯째, 대학의 자율화를 촉진하고 있다.

일곱째, 대학들 간 선의의 경쟁체제가 확립되었다.
여덟째, 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하였다.

IV. 맺음말

최근 국내에서도 평가기구가 다양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현상은 199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발생하였는데, 평가기구의 다양화는 사회변화와 더불어 피할 수 없는 측면이라고 하겠다. 특정 학문분야를 중심으로 자체적인 평가 수행을 시도하는 빈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부터 정보공시제가 실시되면 평가기관은 더욱 더 증가할 것이다.

대교협에 의해 수행되어 오던 기존의 대학평가를 비롯하여 교육부의 재정지원평가, 언론사의 대학평가, 특정 정부부처 및 학문분야에서 실시하는 평가 등으로 대학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각종 평가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평가의 중복, 일관성 결여 등으로 업무의 부담이 가중되어 대학이 수행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다. 사회에서는 여러 평가기구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여 나오는 평가결과로 대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보다는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다원화되는 사회에서 다양한 평가가 수행되는 것을 막는 것은 어렵으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평가기구에 대한 조율 조직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는 대학 및 학과교육에 대한 평가인정을 수행하는 다양한 평가기구가 있는데, 이들 간의 업무를 조정하고 협의하며 인정업무를 수행하는 CHEA(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가 활동하고 있다.

대학이 평가로 인해 피로감이 가중되면 대학평가의 의미가 반감될 수 있다. 우리도 사회변화 속에서 향후 대학평가의 발전을 고려하면서 국가 전체의 대학평가를 조정·협의하기 위한 기구를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할 필요

가 있다. 대학평가를 총괄하는 기구를 통해 평가 중복, 일관성 결여, 대학의 부담 가중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평가를 총괄하는 기구는 외국의 예에서 보듯이 비정부·협의체 기관으로 하거나 반민반관적인 기구로 하여 자율적으로 대학교육의 질 관리를 수행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의 특성이 자율성에 있는 것을 감안하면 협의에 의한 자체적인 규제가 정부의 규제보다 더 커다란 영향력을 가질 수 있으며, 사회적 감시체제가 사회에 대한 책무성을 다 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소·개

황인성

한양대학교 교육학과와 동 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치고, 건국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한국교육연구소 및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비교교육학회 사무국장을 역임하였으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수원 연수운영팀장을 거쳐 평가지원부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고등교육정책, 교육재정, 대학경영진단, 대학평가 등이며 이와 관련한 30여 편의 연구 실적이 있다.